



## “고려말 신진사대부, 정몽주와 정도전”

Case : OL-26<sup>1)</sup>

Date : 12/2015

### S#1 의금부 옥사

밀직부사 정도전은 박자량 사건으로 인해 의금부에 투옥되어 있다. 당시 수시중이었던 정몽주 일파는 이 일을 계기로 이성계와 함께 조정을 장악하고 있는 정도전을 축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늦은 밤, 정몽주는 의금부에 투옥되어 있는 정도전을 찾아 간다.

**정몽주** : 이제 죄를 자복하시겠는가? 고관과 신료들을 비방하고 나라의 기밀을 누설한 죄를 말일세.

**정도전** : 내가 아니라고 하면 믿어 줄 것인가? 아니면 나는 죄인이어야만 하는 것인가?

**정몽주** : 천만에. 내가 자네가 고려에 대한 역심을 품고 있다는 것을 눈치 챈 이상 자네를 용서할 생각이 결코 없네. 자네와의 오랜 친구였던 세월, 자네와 함께 수학한 세월을 뒤로하고서라도 난 자네를 용서하지 않을 것일세. 이렇게 해서라도 자네의 역심을 결단코 도려내고야 말 것이야.

**정도전** : 포은, 이쯤에서 멈추시게. 고려에 대한 부질없는 희망을 버리고 나와 함께 역성의 대의를 이루세! 나는 자네를 적으로 돌리고 싶지 않네.

**정몽주** : 닥치시게! 아직도 역심을 버리지 않겠는가? 내게 지금 나라를 파괴하려는 수작마저도 대의로 인정하란 말인가?

**정도전** : 고려는 하늘이 버린 나라였어, 백성을 버린 나라였고! 그런 썩어빠진 나라를 수호하는 것을 과연 대의라 이름 할 수 있겠는가? 나는 이 삼한의 땅에 성리학의 이념과 민본의 정신이 살아 숨 쉬는 나라를 만들 것일세. 이성계 같은 덕망 있는 자가 군주가 되어 왕도를 밝히고, 자네 같은 자가 집정대신이 되어 문무백관과 더불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만들 것이란 말일세!

---

1) 본 Case는 2015년 가을학기 ‘조직학습 :기회와 함정’ 수업의 일환으로 이무원 교수님의 지도 하에 공창준, 김수영, 박민경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위의 저자에게 있음.

**정몽주** : 자네의 대의는 허상이네. 그것은 결국 또 다른 난세를 만들 뿐이야! 지금의 고려로도 얼마든지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네. 고려는 천하에 존재하는 나라 중에 가장 오래된 나라이고 몽고 족에 맞서 60년을 싸워 지킨 나라일세. 충원의 대국조차 만들지 못한 쇠활좌와 대장경을 만든 고매한 정치의 나라이고 말이야. 자네가 말하는 대의란 결국 자네의 야욕에 불과하네!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

**정도전** : (서럽게 울며 절망적으로 주저 앉으며) 포은!

## 1. 고려 말 상황: 공민왕의 폐망과 권문세가의 득세

고려 말은 1351년 공민왕의 즉위부터 조선의 건립 직전인 1392년까지를 아우른다. 고려 말 당시 고려는 한반도 북쪽 지역에서 몽고인이 건립한 원나라로부터 내정간섭을 받고 있었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 고려의 기득권을 잡고 있었던 정치 세력은 바로 기철을 중심으로 한 권문세족들이었다. 권문세족은 원나라와 고려의 외교 관계를 담당하고 있던 역관출신들로 원나라 지지를 등에 업은 세력이었으며 친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따라서 원나라의 간섭과 권문세족의 득세로 고려는 자주성에 심각한 손상을 입고 왕권 또한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고려의 자주성을 회복하기 위해 공민왕은 즉위하면서 당시 흥건적의 등장으로 원나라가 약해진 틈을 타 여러 개혁 정책을 시도한다. 원나라와의 상하관계를 끊기 위해서는 고려 안에서 친원 정책을 펼치고 있던 권문세족을 제거해야 했는데 그러한 목표의 일환으로 공민왕은 권문세족에 대적할 만한 인물들을 대거 등용하게 되고, 이들이 바로 ‘신진사대부’이다. 신진사대부는 지방 향리들의 자손으로 성리학을 수용한 이들로 당시 고려 말의 문제 상황에 대한 상당한 개혁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한편 공민왕은 개혁 정치의 일환으로 권문세족에 맞서기 위한 새로운 세력을 형성하기 위해 ‘신진사대부’를 대거 등용하게 된다.. 후에 신진사대부 출신 정도전의 충심에 감복하여 다시 새로운 고려를 이끌어 가려고 하지만 1374년 공민왕이 비참하게 암살당하게 되면서 그의 개혁 정치도 막을 내린다. 이로써 공민왕이 시행했던 대대적인 개혁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게 되면서 권문세족들이 고려의 기득권으로 다시 복귀하게 된다. 음서제와 공음전이라는 특권을 통해 이인임을 중심으로 한 권문세족들의 세력은 점점 더 강대해지게 되고 이후에는 고려 전체 토지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권에 있어서도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된다.

### 1.1 문란한 토지제도: 사전의 독점

당시 고려말 토지제도는 ‘전시과’ 제도로 국가의 토지를 ‘공전’과 ‘사전’으로 나누고 있었다 (exhibit4). 이 토지제도가 문제시되었던 것은 당시 기득권층이었던 권문세족의 욕심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즉, 권문세족들이 불법적으로 사전을 대규모로 확대시키면서 농민들의 땅을 빼앗아 농민들의 삶이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 고려 토지의 90%가

권문세가의 농지였고 나머지 10%를 왕가와 자작농이 나눠서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권문세가의 수탈이 매우 심하여 산맥과 강을 경계로 권문세가의 농지영역을 나눌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이로 인해 자작농이었던 백성들이 대부분 대지주의 소작농이 되고, 소작농이 노비가 되고, 노비가 산적이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었다. 농민들이 피땀을 흘려 농사를 지어도 권문세족들의 만행으로 실질적으로 농민의 손에 들어오는 수확물은 매우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 1.2 백성들에게 부과된 높은 세율

고려 말기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했던 또 하나의 원인은 바로 높은 세율이었다. 그 당시 백성들에게 부과된 세금이 수확물의 9할에 이를 정도였다고 한다. 쌀 10섬을 수확했을 시 9섬을 나라에서 세금으로 가져가는 것이다. 권문세족들이 전체 토지의 90%에 해당되는 토지를 소유하면서도 ‘사전’이라는 명목 하에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음으로 인해 국가재정은 파탄에 이르게 되고 계속 더 높은 이율을 부과하면서 백성들의 삶은 점점 더 궁핍해지게 된다.

*‘칼춤에 꽃놀이 도화전에 노랫가락 시리게 흥겨운데 오백년 공들여 애써온 대업 모두 허사로다. 아비는 칼 맞아 스러지고 자식들은 세금에 찢겨죽고 찻가루 날리는 만월대에 통곡소리 구슬퍼라’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

## 1.3 부패한 관직등용문제

고려 말은 관직등용에 있어서도 부정부패가 판을 치는 시기였다. 당시 권문세족은 ‘음서제’라는 관리 등용 제도를 통해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과거제도를 통해 중앙 관리가 선발되었던 기존의 관습과는 달리 음서제란 고위관직자의 자녀를 시험 없이 관리로 채용할 있게 한 제도였다. 특히 음식은 매년 정기적으로 관리 한 사람당 한 명의 자녀를 채용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전체 음서 출신자 수가 과거 급제자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음서 출신자들의 대부분이 5품 이상 직에 오르고 있으며 대략 50~60%는 재상에 진출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귀족들이 음서를 통해 관직을 전수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당시 과거제를 시행하고는 있었지만, 과거를 통과하여 관직에 등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권문세족들이 고위 관직을 차지하고 있어 대다수는 하급관직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권문세족들은 이러한 음서제를 통해 귀족사회의 제도적인 기반을 다짐으로써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국가정책을 시행했으며 이로 인해 재정낭비, 고려 말기 백성들에게 높은 세율 부과 등 나라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많은 정치적 폐단을 일으키게 된다. 한편 이후 등장한 신진사대부들이 모든 관리들은 과거 시험을 통해 등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권문세족의 권력 기반을 흔들어 놓는 계기를 마련했다.

## 1.4 왜구. 홍건적의 침입으로 혼란스런 상황

고려 말기 왜구와 홍건적의 침입은 고려의 상황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 원인이었다. 왜구는 충정왕부터 우왕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고려를 침략해왔었는데, 공민왕 8년부터 10년까지는 왜구에 이어 홍건적까지 침입해오면서 민생은 심각한 위기에 놓여있었다. 삶의 근거지가 파괴되었으며 농토가 황폐화되었고 경제적 궁핍으로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했다. 설상가상으로 공민왕 시기 가뭄과 기근까지 겹쳐 백성들은 심각한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 왜구의 경우 얼마나 자주 침탈했었는지 바닷가로부터 50리 정도 떨어진 지대에서야 백성이 편히 살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심각성은 공민왕 원년(1352)에 이색이 올린 상소에도 잘 드러나 있다.

*‘우리나라는 삼변이 바다를 끼고 있어 1백만에 달하는 백성들이 섬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배의 운항과 수영에 매우 능숙하며 또 밭 갈고 누에치는 대신에 고기 잡고 소금을 생산하는 것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왜적의 등쌀로 주거지를 떠나 생업의 터전을 잃었으니 그놈들을 원망하는 마음이 육지에 사는 백성에 비하여 어찌 열배에 그치겠습니까.’*

## 2. 고려말기 중심세력들

### 2.1 권문세족의 최고권력자, 이인임

이인임은 수문하시중, 즉 재상 서열 2위로 고려 말 권문세족 중에서도 최고권력자에 해당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정치적으로 매우 노련했으며 권력에 대한 야망이 컸다. 공민왕 시해사건의 배후에 있었으며 공민왕이 죽자 어린 모니노를 우왕으로 추대하여 자신의 꼭두각시 왕으로 만들려고 한다. 실제로 그는 우왕 뒤에서 정치를 좌지우지했으며 신진사대부 세력을 탄압하고 최영을 역심을 가진 반역자로 몰아가는 등 끊임없이 자신의 권세를 확장해나가고자 한다. 고려말기 수많은 폐단들의 중심에는 바로 이인임이 있었다.

*“앞으로는 이 나라의 임금을 나 이인임의 개로 만들 것이요. 두고 보시오. 왕전(공민왕의 이름)!(드라마 정도전)*

### 2.2 개혁을 이끄는 지식인들, 신진사대부-정몽주, 정도전

공민왕 당시 내우외환의 위기에 빠진 피폐한 고려 말기 상황에서, 권문세족들의 행태를 비판하며 그들과 대립각을 세운 세력이 있었다. 바로 원 간섭기 공민왕의 개혁정치를 주도했던 신진사대부들로 성리학자인 이색 문하에서 배운 정몽주, 정도전, 권근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들은 권문세족의 권력 하에서 좌지우지되는 정치상황과 권문세가의 소작농으로서 핍박받는 백성들의 삶에 분개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음서제로 기득권을 잡고 있던 권문세

족들에 비해 과거제를 통해 관리로 진출한 신진사대부들의 힘은 미약했으며 설상가상으로 공민왕이 시해 당하게 되면서 권문세족들로부터 대대적인 탄압을 받게 된다.

### 2.3 떠오르는 새로운 힘, 신흥무인세력

또한 고려 말기 신진사대부 외에도 눈여겨보아야 할 세력은 최영, 이성계를 비롯한 신흥무인세력들이다. 그들은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으로 고려가 위태로워지자 군사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 많은 공적을 올리게 된다. 최영은 홍산대첩에서 왜구를 격퇴(1376)하고, 이성계는 황산대첩에서 왜구를 크게 이겨(1388) 왜구를 약화시키고 자신들의 세력을 키워나가게 된다. 최영은 양광도, 전라도, 경상도 도통사로서 탐라의 원나라 목호의 반란을 진압하고 있던 도중 공민왕의 죽음을 듣고 개경으로 회군하게 된다. 용상에 앉은 우왕을 접견하는 과정에서 이인임의 행태를 목격하게 되고 우왕에게 군권을 반납하게 된다.

## 3. 정몽주와 정도전의 배경

이처럼 공민왕, 우왕, 창왕으로 이어지는 고려말기는 말 그대로 격변과 혼란의 시기였다. 권문세족들로 인해 고려의 정치적 기강은 해이해지게 되고 경제적 수탈을 더 극심해졌으며 이로 인해 백성들의 삶은 더할 나위 없이 피폐해지게 된다. 이러한 혼란의 중심에 서 있던 두 인물이 바로 신진사대부인 정몽주와 정도전이였다. 당시 권문세족들의 탄압에 밀려 미약하기 그지없던 그들이었으나 후에는 멸망해가는 고려와 새로운 나라 조선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된다. 같은 스승에게서 배운 동문이며, 동시에 40년 지기의 친우이자, 회대의 라이벌이기도 한 정몽주와 정도전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 3.1 당대의 천재이자 고려 성리학의 시조, 정몽주.

포은 정몽주(Exhibit1)는 1337년 경상도 영천에서 태어났으며 고려 인종,의종 때 추밀원지주사를 지낸 정습명의 후손이다. 정몽주는 어린 시절부터 총기가 뛰어나 14세에 성균시에 합격, 그리고 24세에 초반에 3차에 걸쳐 치러지는 과거시험에서 연이어 장원급제하여 당대의 천재로 이름을 날리게 된다. 1362년 관직에 첫발을 내디뎠고, 이후 여러 관직을 거쳐 당시 성균관을 총괄하는 성균관 대사성(정3품)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다. 그의 스승 이색은 정몽주에 대해 ‘학문에서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뛰어났으며 그의 논설은 어떤 말이든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없다’며 ‘우리나라 성리학의 시조’라고 치켜세울 정도로 경전해석에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정도전 역시 정몽주를 일컬어 ‘사람마다 이견이 있게 마련인데 선생은 물음에 따라 명확히 설명하되 털끝만큼도 차이가 나지 않았다’라며 존경의 마음을 표하기도 했다. 그의 재능이 빛을 발한 건 비단 학자로서만이 아니었다. 그는 이성계 휘하에서 왜구와 여진족 토벌에 공을 세웠고 명나라, 왜국과의 외교문제 해결에 큰 공헌을 한 장본인이기도 했다.

### 3.2 불타는 개혁의 꿈을 품고 있던 고려의 이단아, 정도전.

삼봉 정도전(Exhibit1)은 1342년 경상도 봉화지역의 향리집안에서 태어났으며 부친은 형 부상서 정운경이다. 덕망 있는 집안 출신의 정몽주와는 달리, 정도전의 경우엔 외가 쪽이 노비출신이었다. 정도전은 서얼로써 당시 고려사회에서 과거 응시에 제한은 없었으나 출세에 지장이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실제 성균관에서 수학할 당시 그의 서얼신분은 동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다고 한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정도전은 젊은 시절부터 시대개혁정신과 신분상승에 큰 뜻을 품고 있었던 것 같다. 이는 그가 지은 여러 시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푸른 소나무가 길 가에서 자라니 도끼에게 찍힘을 면치 못할 것이고,  
아직도 굳고 곧은 바탕을 지녔으나 햇불의 빛이나 도와줄 뿐이라.  
어떻게 하면 탈 없이 있어서 곧은 줄기가 구름 위로 자라나,  
큰 집을 지을 때가 오면 우뚝한 기둥과 대들보로 쓰일 수 있을까.  
대저 누가 이 뜻을 알아서 가장 높은 봉우리에 옮겨 심어 줄 것인지.  
-옛 뜻 (古意), 정도전.

정몽주가 장원급제한 지 약 2년 후 정도전 역시 과거에 급제하게 되고 정몽주와 함께 당대 최고의 학자 목은 이색의 문하에서 수학하게 된다. 부모상을 지낸 후 태상박사(정6품)에 임명되었으며 문학으로도 이름을 날려 왕의 총애를 받았다.

### 3.3 정몽주와 정도전의 관계

정몽주와 정도전은 당대 뛰어난 학자이자 정치가로 유교사회의 기틀을 다진 인물들이다. 그들은 당대 최고의 학자인 이색 문하에서 함께 배운 동문지간으로, 정도전은 5살 연배의 정몽주의 깊은 학식과 인품을 존경했으며 정몽주 역시 정도전의 총명함을 눈여겨보았고 그를 매우 아꼈다고 한다. 정몽주는 정도전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고 마음을 같이 한 벗의 맹세를 나눌 정도로 그들은 서로의 가장 친한 친우이자 든든한 조력자가 된다. 실제로 요동정벌을 주장한 최영에 맞서 친명주의를 주장하였으며 권문세족들의 힘에 맞서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하기도 했다.

#### S#2 이색의 학당

날이 밝은 어느 봄 날, 이색의 학당에서 수학중인 18세의 정몽주와 13세의 정도전이 학당 마당에서 대화하고 있다.

**정몽주** : 학당을 그만 둘 거라고 들었습니다. 계속 다니세요. 이색 스승님은 원나라에서도 손꼽히는 성리학자 이십니다.

정도전 : (당돌하게 노려보며) 그럼 뭐합니까? 제자란 것들이 전부 멍청한 놈들이네요. 과거를 보지 않고도 관직에 나갈 수 있는 권문세가의 자식이 태반입니다. 그런 놈들이 학문에 관심이나 있는 줄 아십니까? 사대부가의 자식들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색 선생의 제자랍시고 뭐나 되는 듯이 빠지고, 가문의 연줄 따져서 끼리끼리 몰려다니는 족속들입니다. 절이 싫으니 중이 떠나야지요.

정몽주 : 그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는 것입니다. 사내 대장부답게 당당히 맞서 싸우세요. 방금의 그런 자신감이라면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정도전 : (주저하며)그럼 제게 청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제가 형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정몽주 : (단호하게) 그건 아니 되겠습니다.

정도전 : (풀이 죽은 듯이 고개를 숙이며 아무 말이 없다.)

정몽주 : (부드럽게 웃으며) 예로부터 뜻이 통하는 사람은 나이를 떠나 벗이 될 수 있다 하였습니다. 나는 거기와 망년지교를 맺고 싶은데, 제 청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정도전 : (놀란 듯 환하게 웃으며)예? 저와 벗을 말입니까? 고맙습니다 사형! 고맙습니다.

정몽주 : (그런 정도전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웃는다.)

#### 4. 신진사대부의 시련

공민왕의 개혁 정치의 일환으로 추진된 유학 육성사업으로 인해 대거 등용되었던 신진사대부는 공민왕의 승하와 함께 모든 면에서 큰 위기를 맞게 된다. 특히 명나라와 손을 잡고 과거 100년간 고려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온 원나라에 맞서려 했던 신진사대부의 외교 정책은 큰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다. 1375년 원나라 사신이 고려의 국경을 넘자 사신을 영접하자는 권문세족과 이들을 돌려보내야 한다는 신진사대부들이 팽팽하게 맞섰는데, 결국 원나라 사신 영접을 반대했던 신진사대부들이 대부분 축출되어 유배에 처해지게 된다. 신진사대부의 핵심이었던 정몽주와 정도전도 이때 모두 각각 유배에 처해지게 된다.

##### 4.1 정몽주의 짧은 귀양 생활과 정계 복귀

이 때 정몽주는 경상도 언양으로, 정도전은 전라도 나주로 각각 유배를 떠나게 되는데 이 때 정몽주가 정도전에게 <맹자(孟子)>를 읽도록 건네주었다. 정몽주는 2년 간의 귀양 생활을 하던 중 신료들의 천거로 왜와 휴전 협상을 주도하는 보빙사(외교 사절단)로 왜에 파견을 떠나게 됨으로 귀양생활을 끝내게 된다. 이러한 그의 천거의 배경에는 그의 능력 뿐만

아니라 그의 높은 가문적 배경도 작용 하였다. 왜에 간 정몽주는 탁월한 외교술로 왜와의 협상에 성공하여 왜군의 고려 침략금지 약속을 담은 합의문을 도출해내었고 왜에 잡혀 있던 고려인 포로를 구해내기 위해 협상하여 수백 명의 고려인 포로를 구해내었으며, 협상을 통해 구해내지 못한 남은 포로들을 구해내기 위해 직접 자기 재산을 들여 포로를 속전하기도 하였다. 정몽주는 이러한 외교적 성공을 통해 중앙 정계에 다시 화려하게 복귀할 수 있었다.

## 4.2 정도전의 긴 귀양생활과 유랑

반면 신진 사대부 중에서도 ‘요주의 인물’로 찍혀 있던 정도전은 귀양 생활 3년 후에 유배에서 풀려나긴 했지만 당시 수도였던 개경 출입은 오랫동안 금지되어 수많은 세월을 전국을 유랑하는 암흑기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길었던 유랑 생활을 통해 정도전은 백성들의 생활을 직접 목격하며 그들의 피폐한 삶을 피부에 와 닿게 느낄 수 있었다(Exhibit5). 그가 본 백성들의 삶은 높은 세율, 관리들의 착취, 왜구의 잦은 침략으로 완전히 피폐해져 있었다.(Exhibit6) 한 농부는 들녘에서 정도전에게 “관리들이 누구 하나도 국가나 백성의 걱정, 근심에 뜻을 두지 않으면서 녹봉만 축내고 있지 않소?”라고 묻기도 하였다. 이 유랑 기간 동안 정도전은 백성들의 피폐한 삶을 실제로 목도하고 함께 생활하며 자신이 구상한 성리학적인 이상이 피폐한 백성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품게 된다.

### S#3 나주 회현 정도전의 유배지

정도전이 늦은 밤 조용히 책을 읽고 있다. 제목은 <맹자 양혜왕 장구 하편>이다. 그 중 한 대목이 정도전의 시선을 끈다. [... 제나라 선왕이 맹자에게 물었다. “무왕이 주왕을 죽이고 주나라를 세웠는데, 신하였던 자가 왕을 죽이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맹자가 답했다. “아무리 임금이라도 인을 해치면 적(賊 : 도둑 적), 의를 해치면 잔(殘 : 잔인할 잔), 잔적(殘賊 : 잔인한 도둑)한 자는 임금이 아니다.”...] 정도전이 지그시 눈을 감고 고민에 빠진다. 적막이 한참 흐른다. 그리고 이내 무엇인가 결심한 듯 눈을 뜨고 다짐하듯 외친다.

**정도전** : 백성을 위하지 않는 잔적인 임금을 죽이고 성이 다른 임금을 세우는 것, 그것은 패륜도 찬탈도 아니다!

## 5. 정몽주의 정계복귀와 정도전의 이성계 진영 합류

### 5.1 정몽주의 중앙 정계 활동과 개혁 내용

조정에 복귀 한 정몽주는 이 시기에 계속해서 왕성한 정치활동을 통해 성공을 거듭하고 있었다. 조정에 복귀하여 우왕 4년에 우왕기산시(정3품)에 임명되었고, 우왕 6년에 이성계와

함께 왜적을 물리치고 와 밀직제학(정3품)에 임명, 우왕 7년에 첨서사사(정2품), 우왕 8년 동직밀직사사(정2품), 우왕 10년 정당문학(정2품)을 거쳐서 그리고 우왕 13년에는 영원군(永原君)으로 봉해지며 활발한 정계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다. 정몽주는 성리학을 근간으로 한 신진사대부로서 군왕이 나라의 중심이 되는 군왕 중심제 정치체제를 기본으로 국가 체제를 구상했는데 군왕이 덕을 잃으면 나라가 위태롭다 생각하고 군왕의 선정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대간(군주를 비판하고 왕명을 반대하던 곳)의 기능을 확대하고 왕권을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법질서의 확립을 위해 법전 간행을 주도하였고 의창을 부활시켜 가난한 백성을 많이 구제하기에 힘썼다.

## 5.2 정도전의 조선 건국 구상과 이성계 진영 합류

한편 정도전은 정몽주의 정계 복귀 이후에도 6년간 유랑 생활을 더 하였다. 이 기간 동안 목격한 백성들의 삶은 정도전이 그만의 새로운 체제를 구상하고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도전은 권력이 왕이라는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서는 백성을 위한 통치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재상중심체제를 꿈꿨다. 이 체제에서 왕은 관념적 절대자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실력으로 뽑힌 재상이 통치의 실권을 가지게 되었다. 재상은 왕을 보필하며 최고 정책 결정권자와 최고 정책 집행권자로서의 권한을 가지는데 궁극적으로 '혁명권'까지 인정되었다. 정도전은 또한 왕과 관리에 대한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언론 기관의 확장이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의창을 통해 식량을, 해민전약국을 통해 의약품을 공급하는 것을 구상하였다. 정도전은 그가 47세가 될 무렵에 유랑 생활을 마치고 함경도 동북면에 있던 이성계를 찾아가 그의 진영에 합류한다. 이 때 그는 이성계를 설득하여 함께 혁명을 결의하게 된다. 이성계 진영에 합류한지 5년 후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통해 권력을 잡게 되자, 이성계의 천거로 성균관대사성에 올랐고, 이후 밀직부사(정3품)로 승진하며 중앙 정계에 복귀하였다. 그리고 2년 후 다시 정당문학(정2품)으로 승진하였다.

## 6. 정몽주와 정도전의 중앙 정계 복귀 이후 상황

### 6.1 권문세족의 횡포

정도전과 정몽주가 중앙 정계로 복귀한 이후에도 고려 말 상황의 혼란스러움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다. 공민왕 폐위 이후 다시 실권을 잡은 권문세족이 막강한 권력을 기반으로 대농장을 확대해 감으로써 농민의 대다수는 소작농으로 전락되어 자작농은 점차 줄어들었고, 농민의 이탈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세납자가 감소하여 국가재정의 궁핍함을 초래하였다. 또한 왜구의 피해는 내륙지방에까지 미쳐 그 피해가 참담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문세족들의 부정부패는 토지와 노비의 약탈 그리고 매관매직 등 그 전횡이 날로 맹위를 떨쳐갔다. 반면 정도전과 정몽주를 비롯한 신진사대부는 이러한 권문세족의 횡포에 큰 불만을 가지고 개혁의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권문세족의 위세에 밀려 개혁을 단행할만한 힘이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1388년 비로소 신진사대부의 개혁 의지를 펼칠 기회를 잡게 되는데, 바

로 이성계가 주도한 위화도 회군이 그 시발점이 된다.

## 6.2 위화도 회군

당시 고려는 명나라와의 압박과 간섭을 받는 등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 무리한 명의 요구에 반발한 최영은 우왕의 지지를 등에 업고 명나라를 공격할 목적으로 요동정벌을 계획하게 된다. 이성계 역시 한 나라의 장군으로서 명나라 침략 계획에 참여하게 되지만, 처음부터 요동정벌을 반대하고 있었고 결국 요동에 도달하기 직전 '위화도'에서 사병들을 이끌고 회군하게 된다. 이성계는 당시 고려조의 현실적 능력과 국내 여건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러한 시도는 필히 실패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위화도회군 사건은 왕의 명령에 반하는 것으로 명백히 쿠데타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이성계는 성공적으로 개성을 침략하여 우왕을 폐위시키고 최영을 유배를 보내게 된다. 이 때 이성계는 권문세족을 중앙에서 몰아내는 계획에 신진사대부와 같은 뜻을 하게 되어 결탁하고 이를 계기로 신진사대부 역시 세력 확대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곧이어 이성계는 창왕을 즉위시키거나 곧바로 공양왕을 옹립하게 되는데, 명실 공히 최고 실력자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 6.3 신진사대부의 분열

한편 공양왕 즉위 이후부터 신진사대부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데, 고려 왕조를 유지하며 개혁을 하자는 주장과 새로운 왕과 새로운 나라를 건립함으로써 대대적인 혁신을 일으키자는 입장의 두 세력으로 나뉘게 된다. 전자를 정몽주로 대표되는 온건개혁파라 한다면 후자를 급진개혁파라 할 수 있고 정도전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물론 양자를 불문하고 신진사대부 고려의 혼란스러운 상황에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만 해결 방법에 다른 견해를 보인 것이다. 특히 급진개혁파가 역성혁명이란 파격적인 면모를 보인 가장 큰 이유는 고려 시대의 토지문제와 조세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의 허수아비 노릇밖에 하지 못하는 고려왕조 하에서는 근본적인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왕조를 건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 6.4 계민수전과 과전법

당시 고려말 토지제도는 '전시과'제도라 불리는데, 국가의 토지는 '공전'과 '사전'으로 나뉜다. 이 토지제도가 문제시되었던 것은 당시 기득권층이었던, 사전의 대다수를 소유하고 있던 권문세족의 욕심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많은 권세가들은 그렇게 한번 받은 토지를 좀처럼 국가에 반납하지 않으면서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등 불법을 공공연히 자행했다. 뿐만 아니라 무력을 동원해 백성의 소유인 토지를 강제로 빼앗고 가혹한 수탈로 농민들이 내야 할 세금이 9할에 이르기까지 했다. 갖은 수탈로 농민들의 삶의 터전이라 할 수 있는 농토를 뺏기면서 농민들의 생활이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체개혁으로 급진개혁파와 온건개혁파 각각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는데, ‘계민수전’과 ‘과전법’이 그것이다.

급진개혁파의 개혁안 ‘계민수전’은 모든 토지를 국가에서 몰수하여 다시 새롭게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자는 것이 핵심이었다. 당시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였던 토지를 모두 몰수하겠다는 것은, 기존의 고려 귀족의 정통성 전체를 무너뜨리겠다는 선언과 다름 없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토지의 소유권 자체가 농민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전까지의 토지제도가 국가소유를 기반한 것과는 달리 소작농을 거부하고 자작농의 양성을 목표로 하여 오로지 백성의 민생을 염두에 둔 토지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온건개혁파는 ‘과전법’을 주장하며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는데, 농민에게 토지소유권을 줄 수는 없고 세율을 1/10으로 낮추어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관료들의 착취를 철저히 감시 관리하자는 것이었다(Exhibit7). 아래 정도전과 정몽주가 주고받은 서신을 통해 두 입장 차이를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다.

포은, 자네는 정녕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백성이 하늘처럼 여기는 것은 오로지 처자식이 먹을 수 있는 따뜻한 밥상 한 그릇일 뿐이네. 그런데 몇 무뎀에 안 되는 밭을 일 년 내내 부지런히 갈아봤자 부모와 처자를 먹여 살릴 만큼도 소출이 나오지 않는데, 소작료를 걷는 자들이 곧 와서 그것마저 거두어 가 버린다네. 내가 지난날 회현에서 유배를 가 있을 때도 오늘처럼 날씨가 추워질 때면 백성들은 얼어붙은 제 손 녹일 걱정보다 얼어붙은 농작물을 보며 근심을 했다네. 자네 말대로 과전법으로 백성들의 세율을 낮추어 일시적으로 부담을 덜어줄 수는 있을 것이네. 그리고 일부 귀족의 부정한 땅을 혁파해서도 그럴 수 있겠지. 그러나 그것은 결국 누군가가 다시 세율을 조정하기만 하면 언제든 다시 백성을 수탈할 수 있는 구조이네. 하여 백성들에게 반드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돌려주어야 한단 말이세! 지금과 같이 백성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주지 않고 경작권만 주는 방식은 백성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단 말이네. 결국에는 또 욕심 있는 자가 권력을 잡게되면 백성들은 언제라도 수탈을 당하고 말걸세!

삼봉, 자네의 서신은 잘 받았네만, 나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네. 오늘 도당에서 발표하여 결국 과전법이 시행될 것이네. 자네도 오늘 개경 한복판에서 불타오르는 토지문서들을 보며 행복해하는 백성들의 표정을 보지 않았는가? 모든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킨 후 백성들에게 모두 공평하게 나누어 주겠다고? 그것이 정녕 이 땅에서 실현이나 가능한 꿈이란 말인가? 그런 세상이 정녕 중원 어디에서라도 실현된 적이 있단 말인가? 그것은 고려의 근간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야! 자네야말로 이 고려왕조를 옹호하려는 명분에 눈이 멀어 무리하게 계민수전을 주장하는 것은 아닌가? 하여 나는 자네의 말에 따를 수가 없다네. 과전법을 통하여 권문세족이 그들의 야욕으로 수탈한 농민들의 토지를 그들에게 다시 돌려주었고, 농민들이 내어야 할 세금을 5할에서 1할로 줄인 것이 어찌 백성을 평안케 하는 정책이 아니란 말인가? 현실적으로 고려가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도는 과전법이네. 허튼 생각 하지 말게나!

## 6.5 역성혁명을 위한 급진개혁파의 대대적인 단행

운건개혁파의 개혁안인 과전법이 채택되면서 정도전의 전제개혁 의지는 굴복시켰다 하더라도 그의 역성혁명에 대한 질주를 멈추게 할 수는 없었다. 삼봉은 새로운 나라를 이끌 위인으로 당시 정치적 실권을 잡고 있던 '이성계'를 지목하였던 것 같다. 하지만 위화도 회군 이후 이성계는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었지만 실질적인 그의 즉위는 많은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 이성계와 정도전이 이끄는 급진개혁파는 이러한 반대세력을 배척하기 위해 정적세력의 직위를 박탈하거나 유배를 보내는 등 공격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exhibit8)

### \* 정도전의 사람들

#### 1. 윤소중

윤소중은 성격이 강직하고 아침하지 못하는 성격이어서 처음부터 그의 관직 생활은 순탄치 못하였다. 윤소중은 공민왕 후반에 간관으로 활동하다가 탄핵 면직되었다. 그 후 우왕 5년에 다시 정계에 진출하였지만 관직 생활이 오래 가지 못하였다. 이후 5년의 공백 기간 동안 전라도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백성의 처지를 직접 목격하게 되었다. 그는 백성의 고통을 보면서 우왕의 무능함과 권력 유지에만 급급한 이인임-최영 정권세력에 강한 비판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위화도 회군 이후의 정치활동을 통해서 사회적인 모순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였다.

#### 2. 조 준

조준은 공민왕 23년에 과거에 급제하였지만, 같은 해 공민왕 시해사건이 발생하여 고려가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태였기 때문에 관직에는 진출하지 못하였다. 대신 그는 백성들이 겪고 있는 사회경제적인 모순(토지제도)과 왜구의 침입으로 피폐한 지방민의 실상을 직접 목격하고 개혁에 마음을 두게 되었다. 그는 관직 생활을 하면서도 자주 지방에 파견되어 왜적을 무찔렀는데, 이 과정에서 중앙에서의 통치 질서의 붕괴로 인한 국력의 약화, 사회질서의 혼란 등 당시 고려 사회가 처해 있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는 아침하지 싫어하고 직언하는 성격으로 당시 정국을 주도하고 있던 권문세족에 비판적이었고 이후 정치활동을 통해 고려의 혼란한 시대적 상황을 바로잡으려 노력하였다.

#### 3. 남 은

공민왕 때 과거에 급제하여 신진사대부로 정치 생활을 시작하였으며 성격이 호탕하고 자유분방 하였다. 젊은 시절 왜구의 침략이 잦아 아무도 부임하지 않으려는 삼척군에 수령을 자청하여 가서 열 명 남짓한 기병으로 왜구를 겁을 주어 물리쳤을 정도로 용감했다. 정도전과 친분이 깊은 사이였는데 정도전이 전라도 나주로 유배를 가게 되었을 때 남은이 극렬하게

반대하였으나 구해내지 못하여 본인도 스스로 사직하였다. 이후 동료 신진사대부의 탄핵을 받아 먼 곳으로 유배를 떠나게 된다. 훗날 이성계 진영에 합류하여 위화도 회군을 이성계에게 주청하기도 하였다.

## 6.6 역성혁명을 반대하는 온건개혁파

반면 당시 고려에서 성리학의 창시자로 불리던 정몽주를 둘러싼 온건개혁파의 입장에서 새 왕조의 건립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포은이 해석한 성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금과 신하의 관계에 관한 규범이자 충(忠)이며, 충을 실천할 때 위기를 만나면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 규범을 지켜내어야 한다. 다시 말해 국가존망의 위기를 당하거나 왕위찬탈의 위기를 당했을 때 생명을 바쳐 이를 막는 것이 바로 명분에 합당한 의리정신인 것이다. 하여 정몽주 세력은 마지막까지 정도전 세력에게 극렬하게 저항하였다(Exhibit8). 아래의 글은 이러한 정몽주의 신하는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는 '충신불사이군(忠臣不事二君)' 정신을 잘 드러내고 있다.

지극히 쇠퇴하고 꼭막힌 때를 만나 어찌할수 없게 되자, 이에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남의 신하가 되어 어찌 감히 두 마을을 품겠는가? 나는 이미 나의 처할 바가 있다.”하였다. 대저 한 몸으로 오백년 끝의 운명을 당하여 흰 칼날을 밝게 되었는데도 피하지 않고 그 늪늪함이 엄한 서리가 뜨거운 태양과 그 빛을 닮 정도였으니, …… 큰 절개에 임하여 뜻을 빼앗을 수 없는 군자인 것이다. 진실로 깊은 수양이 평소부터 있지 않았다면 어찌 이처럼 확고할 수 있겠는가!

### \* 정몽주의 사람들

#### 1. 이 색

이색은 아버지가 찬성사(정2품) 출신의 귀족 집안의 사람이다. 14살 때 성균관 입학 시험에 합격하여 명성이 자자하였고, 19살 때 아버지를 따라 원나라로 유학을 떠나서 아버지의 후원으로 국자감(원나라 최고 교육기관)의 생원으로 공부할 수 있었다. 25살 때 과거에 장원 급제하여 백성의 삶과 국방 정책에 대한 많은 개혁안들을 조정에 건의하였으며, 우왕 때 정당문학(정2품)에 오르고 우왕의 스승으로 임명되기도 하였다. 제자로 정몽주, 이숭인 등의 주요 사대부를 길러냈고 위화도 회군 이후에는 이성계의 힘을 억제하기 위하여 정몽주와 함께 노력 하지만 정도전에 의해 숙청되어 유배를 가던 중 사망하였다. 고려 말 최고의 성리학자로 꼽힌다.

#### 2. 이숭인

이숭인은 대대로 고위 관료를 배출해낸 귀족 가문으로서 그는 24살 때 과거에 급제하여 진덕박사(8품)를 거쳐 우사의대부(4품)로 승진한다. 그러나 곧 원나라의 사신 영접을 반대했다

는 이유로 정도전, 정몽주와 함께 귀양을 가는데, 그의 가문적 영향력으로 인해 곧 귀양에서 돌아와 밀직제학(3품)이 되어 정몽주와 더불어 의기투합하여 함께 일하였다. 따라서 위화도 회군 이후 정도전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정도전의 미움을 받아 정도전 세력의 공격으로 많은 핍박을 당하였다. 결국 정도전 세력에 의해 곤장형을 당하던 중 무리한 형 집행으로 인해 사망하였다.

### 3. 우현보

우현보는 아버지가 최고의 성리학자 중 한 명인 우탁의 후손으로 귀족 집안 출신이다. 22살 때 과거에 급제하고 승진을 거듭하여 정2품 정당문학의 자리까지 올랐다. 최영, 정몽주, 이색과 가까웠던 그는 자연스럽게 위화도 회군 이후에 이성계의 반대편에 섰다. 정도전의 외할머니가 이 우 씨 집안의 종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던 우현보는 정도전을 출신이 천하다고 하여 줄곧 조롱하고 멸시하였다. 이로 인해 우현보는 정도전에게 원한을 사게 되었고 조선이 건국된 이후 정도전에 의해 가문 전체가 잔인하게 숙청당한다.

#### S#4 이성계의 집

정도전은 이성계가 정몽주가 입안한 과전법을 통과시켰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난 채로 늦은 밤 이성계의 집을 찾아간다. 이성계가 기다리고 있다.

**정도전** : 고작 과전법 정도나 하려고 시작했던 전체개혁이 아니었습니다! 고려를 끝장내기 위함이었고, 그를 위해서는 계민수전 이어야 했습니다! 이런 소신의 뜻을 어찌 이리 짓밟으신 것입니까?

**이성계** : (분노한 듯 격앙된 말투로) 백성들은 불타는 토지 문서를 보며 저리 기뻐하는데, 백성을 위한다는 그대는 하나도 기뻐 보이지가 않는구려! 옛날에 삼봉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었지. 흘리는 피의 양이 많을수록 대업의 정당성은 줄어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대는 지금까지 당신이 흘린 피가 작다고 생각하시오? 당신이 누누이 말하던 정치의 힘은 어디로 갔단 말이오?

**정도전** : 정쟁과 술수가 있었고 착오도 있었습니다. 허나 500년 고려와 더불어 특권을 누려온 자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공명정대함으로 그들을 상대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이성계** : 변명이오, 변명하지 마오. 그럴 바엔 차라리 병사들을 끌고 가서 확 다 덮어버리는 것과 지금이 무엇이 다르단 말이오? 사십 년 벼를 무참히 때려잡는 것도 정치요?

**정도전** : (단호하면서도 슬픈 표정으로) 대감, 사십년 지기 벼이었던 삼봉과 포은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습니다. 지금은 각자의 대의에 함몰된 두 마리의 괴물이 여기 있을 뿐입니다.

Exhibit 1 포은 정몽주와 삼봉 정도전

1. 포은 정몽주



2.. 삼봉 정도전



Exhibit 2. 고려 말 중앙 정부의 권력구조 및 권력투쟁 전개

권문세족	무인세력	신진사대부
<p>이인임</p> <p>염흥방</p> <p>임견미</p>	<p>최영</p> <p>이성계</p>	<p>이색</p> <p>정몽주</p> <p>정도전</p> <p>윤소중</p> <p>남은</p> <p>조준</p> <p>우현보</p> <p>이숭인</p>

- (1) 공민왕 승하 이후 : 이인임과 최영의 연립 정권 형성
- (2) 최영이 이성계와 함께 이인임 세력 숙청
- (3) 최영과 이성계의 연립 정권 형성
- (4) 이성계의 위화도 사건으로 회군하여 최영 세력 숙청
- (5) 이성계 세력(정도전)이 정권 주도, 이에 반대하는 정몽주 세력이 존재
- (6) 이성계를 지지하던 정도전 세력과 정몽주 세력, 신진사대부 내부의 정쟁
- (7) 정몽주가 선죽교에서 암살당하여 정몽주 세력이 제거됨
- (8) 이성계 세력(정도전)의 단독 정부 장악
- (9) 고려 마지막 왕 공양왕 폐위
- (10) 이성계가 왕으로 등극, 국호를 조선이라 개칭
- (11) 고려 멸망, 조선 건국

Exhibit 3 고려 말 시간순 상황

<중요사건 연대표>



Exhibit 4 고려 말 당시의 토지제도

<전시과 제도>

국가에 봉사하는 대가로 관료에게 전지와 시지를 지급한 제도	
1. 지급 대상	-국가는 문무 관리에서 군인, 한인에 이르기까지 18등급으로 나누어 곡물을 수취할 수 있는 전지와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시지를 줌
2.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조권 지급</li> <li>-토지를 지급받은 관리들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아닌 수조권을 가짐</li> <li>※수조권: 토지에서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li> <li>• 세습불가의 원칙</li> <li>-토지를 받은 자가 죽거나 관직에서 물러날 때에는 토지를 국가에 반납</li> </ul>

<토지의 구분>

기준	구분	내용
소유권	공전	왕실이나 관청 등이 소유한 국공유지의 토지
	민전	귀족이나 농민 등이 개인적으로 소유한 토지
수조권	공전	국가가 직접 수조권을 갖는 토지
	사전	개인, 사원 등이 수조권을 갖는 토지

## Exhibit 5 정도전의 귀양지 생활

“정도전의 귀양지인 소재동 주민(백성)들은 황연, 김성길, 김천, 서안길, 김천부, 조송 등이다. 대부분 술을 좋아했다. 황연의 아내는 술을 잘 빚었으며 그들은 술 마시기를 좋아했다. 김성길은 문자깨나 알고, 그 아우 김천도 담소를 즐겼는데, 모두 술을 잘 마셨으며 한 집에 살았다. 서안길은 마을과 거리의 일들을 모두 알고 있었으며, 김천부, 조송도 술을 잘 마셨다. 이들은 날마다 나를 따라 노닐었으며, 철마다 토산물을 얻으면 반드시 술과 함께 가지고 와서 한껏 즐기고서야 돌아갔다. 다시 소재동은 30대 중반의 정도전에게 배움터가 되었다. 답전부에서는 죄의 유형으로 부정한 사육 추구, 아침을 통한 청탁, 관리들의 무능과 간사함, 전쟁에서의 실패, 권력 남용 등에 대해 들었다. 농부는 정도전과의 대화를 통해 정도전의 올바른 말을 좋아하여 윗사람에게 죄를 얻어 유배를 당하였음을 알고 앞으로는 조심하여 화를 면하라고 충고하기도 한다. 그러자 정도전이 “노인장께서는 숨어 사는 군자이십니다. 집에 모시고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그대는 물러가오. 날 괴롭히지 마시오” 정도전은 정치란 벼슬아치들의 입신양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농사짓는 백성을, 즉 민을 위한 것임을 가슴깊이 깨우쳤다. 즉, 백성(민) 나라의 근본임을 확인한 것이다.“

- 고려사 열전 참고 자료

## Exhibit 6 고려 말 백성들의 피폐한 삶

"근년(우왕 9년경)이래로 왜적이 날로 번창하여 깊숙이 들어와 도적질하고 백성들을 살해하고 노략질하고 집을 불태워 무너뜨리고 마을이 잔폐하여지고 밭과 들이 매우 황무하여졌는데, 장마와 가뭄이 겹쳐 기근이 거듭 이르매 굶어 죽는 자가 서로 어찌할 바를 몰라 서로 바라 보게 되고 창고가 비어 도구가 부족하게 되었다. 또 도적이 몰래 일어나 서로 도륙이 벌어지므로 백성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부자가 함께 있지 못하매 난세가 극심하다.“

- 고려사 열전 참고 자료

Exhibit 7 기존 전시과와 과전법 비교

구분	전시과	과전법
공통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지국유제 원칙(예외적 사유지 존재)</li> <li>관등에 따른 차등 지급</li> <li>수조권 귀속 여하에 따라 공전, 사전 구분</li> <li>세습 불가, 국가반납원칙</li> </ul>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급</li> <li>전지와 시지의 지급</li> <li>농민의 경작권이 보장 안됨</li> <li>관리가 직접 수조권 행사 못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기도에 한하여 지급</li> <li>전지만 지급</li> <li>농민의 경작권이 보장됨</li> <li>관리가 직접 수조권 행사</li> </ul>

Exhibit 8 정몽주 세력의 정도전 세력 간의 정치 싸움

1. 정몽주 파의 정도전 파 공격

<표 4> 공양왕 3년 9월 이후 정몽주 세력의 탄핵 활동

시기	탄핵 주체	탄핵 내용	공양왕의 처리
3년9월	省憲, 刑曹	정도전이 糾正을 피어 대간을 비방했으니 극형에 처할 것	奉化縣으로 보냄
3년10월	성헌	조반이 公田을 함부로 뺐다	官職 削奪 竹林으로 귀양
	"	정도전 派系가 명백하지 못하다	직첩, 녹권을 회수하고 羅州로 옮겨 귀양보내고 아들을 庶人으로 삼다
4년4월	金震陽, 李穡, 李來, 李敢, 權弘, 柳沂	趙浚·鄭道傳·南闡·趙環은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를 구하다. 이들의 직첩, 공신녹권을 회수하고 정도전을 처단할 것.	조준 귀양.남은·남재·조박·윤소종은 관직 삭탈 귀양. 정도전은 보주로 옮김.
	司憲府 大司憲 姜淮伯	吳思忠을 처벌할 것	관직 삭탈 귀양.
	문하부 낭사	조준 등도 정도전처럼 극형에 처하라.	먼저 南闡등 여러 사람을 국문 하게 하여 그 公詞가 조준, 정도전에 관련이 있는 뒤 정도전을 국문 하라.
	성헌	조준· 정도전을 목베라.	不答

출처 : 고려말 정몽주 등조 세력의 형성과 활동(유경아)

2. 정도전 파의 정몽주 파 공격

<표 7> 정몽주당으로 몰려 이성계파의 공격을 받은 인물들

순서	이름	당시관직	이성계파의 처리
1	鄭夢周	수문하시중	살해
2	金震陽	산기상시	유배, 서인으로 삼음
3	李崇仁	지밀직사사	옥에 가둠, 서인으로 삼음
4	李種學		"
5	趙瑚	전밀직	"
6	李擴	우상시	유배, 서인으로 삼음
7	李來	우간의	"
8	李敢	좌헌납	"
9	權弘	우헌납	"
10	鄭熙	집의	"
11	金畝	장령	"
12	徐甄	"	"
13	李作	지평	"
14	李申	"	"
15	李詹	지신사	"
16	李士穎	우부대언	"
17	僕長壽	판삼사사	파면, 곧 이어 유배
18	李茂	지밀직사사	유배
19	李彬	동지밀직사사	"
20	金履	예조판서	파면, 곧 이어 유배
21	安魯生	병조총랑	유배
22	崔關	예조총랑	"
23	金瞻	호군	"
24	姜淮伯	전대사헌	"
25	柳沂	정언	"

출처 : 김당택, 고려말 이성계의 정적

## Question

1. 고려 말 당시 백성들이 살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한 대내외적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을 고려 중앙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2. 정몽주는 고려 왕조를 유지하기 위해 정도전을 설득해야 하고, 정도전은 정몽주를 역성혁명에 가담시키기 위해 설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서로를 생각의 함정에서 구해주기 위해서 정몽주 혹은 정도전의 입장이 되어 Role Play를 해보자.

3. 정도전이 기존의 신진 사대부와 달리 급진적인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정몽주가 그렇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 참고문헌

고려 우왕대 신진사대부의 동향 (유경아)  
정도전의 개혁정치와 그 영향 (김문경)  
정몽주 세력의 고려 중흥을 위한 개혁 방안 (유경아)  
고려말 이성계의 정적 (김당택)  
개혁에 성공한 사람들(1) - 이색과 정몽주 (전윤희)  
고려~조선초, 공,사전의 개념 (이상국)  
고려말 조선초 국내정치 세력의 대중인식 (조 민)  
고려 말 정도전의 정치세력 형성 과정 연구 (이익주)  
고려 우왕대 사대부의 성장과 분기(최봉준)  
고려 우왕대 신진사대부의 동향 (김지희)  
정도전의 개혁 정치와 그 영향 (김문경)  
정몽주의 개혁사상 연구(주인배)  
고려 말 정몽주의 강상론과 정도전의 권별론 탐구(정성식)  
정도전의 민본행저아상 연구(이정수, 이병렬)  
포은 정몽주의 의리정신과 순절의 의미(정병석)

KBS 대하사극 <정도전> 참조

SBS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 참조

[http://www.kyongbuk.co.kr/main/news/news\\_content.php?id=633505&news\\_a rea=120&news\\_divide=&news\\_local=12&effect=4](http://www.kyongbuk.co.kr/main/news/news_content.php?id=633505&news_a rea=120&news_divide=&news_local=12&effect=4)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079>

<http://www.vop.co.kr/A00000971475.html>

<http://blog.naver.com/readerb/220542871725>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77&contents\\_id=2798](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77&contents_id=2798)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40396&cid=40942&categoryId=37713>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34849&cid=40942&categoryId=33382>